



## “전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 문재인 대통령, 전남 ‘블루 이코노미’적극 지원키로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참석...12일 전남도청  
김영록 지사, 에너지·관광·바이오 등 5개 분야 미래 전략 보고

“전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지난해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12일 10번째 전국 순회 경제투어 방문지로 전남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의 미래 발전 전략인 ‘블루 이코노미 (Blue Economy)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무안 남악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제 전남은 천년을 이어온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역사

를 써나갈 준비를 마쳤다”며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영록 전남지사로부터 ▲에너지 ▲해양관광 ▲바이오 ▲운송 ▲은퇴 도시 등 5개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보고받고 축사를 통해 전남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줬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열 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

킨 호국정신이 서린 곳으로 넉넉하고 강인한 정신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아왔다”며 전남의 구국정신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1978년 해남 대흥사에서 전남과 인연을 맺었다”며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을 언급해 전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큰 박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과 관련,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광 산업과 관련, “천혜의 해양 관광·문화 자원과 청정한 환경, 안전하고 맛있는 친환경 먹거리가 풍부한 전남은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매력 만점의 관광지”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전남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를 조속히 완공하고 KTX와 경전선을 연계해 무안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환경부·해수부·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박지원·이용주·윤소하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 서삼석 도당위원장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광주·전남 추경예산 비롯해 내년도 국비확보 청신호  
“지역 예산 빠짐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터”

내년도 광주·전남 국비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광주서구갑)과 함께 나

란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원은 전체 의원 300명 중 5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을 확정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21명, 한국당 19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예결위원 50명

명, 바른미래당 5명,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1명 등 48명이 선임됐다. 나머지 2명은 무소속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예결위원들은 내년 임기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서삼석 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각종 민생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광주·전남 지역 예산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서삼석 도당위원장, 농산물 가격 하락 종합대책 마련 '촉구'

## 대통령, 국회의장, 정부부처에 서신...양파·천일염 구매운동 호소 농협전남본부와 '양파 팔아주기'발대식도 개최



서삼석 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부처, 국회의장, 광역자치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 389개 기관에 양파와 천일염의 구매운동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현재 '2019년산 중만생 양파' 가격은 재작년 기준으로 20kg 당 2만4천원이었던 도매가격이 지금은 9천100원에 불과해 2년 사이 62%가 넘게 폭락했다. 농가들은 생산비 보전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천일염도 매우 심각하다. 2011년 1kg당 525원이었던 가격이 2018년에는 145원으로 8년 사이 72.4%나 폭락해 고사직전의 상황에 놓여있다.

서 위원장은 서신을 통해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 농어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큰 위기에 봉착한 농어민들을 위해 기관 차원의 구매운동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공약을 통해 농어업을 챙겨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하셨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정부의 미래 농업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지난달 4일 농협 전남본부 협력 하에 전남 양파 팔아주기 발대식을 갖고 양파 123톤을 출하하는데 이어 같은 달 11일 양파 수급

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금은 절반이 넘게 하락한 11,200원에 불과하여 생산비조차 못 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지난달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어업분야는 1.3% 증액에 그쳤다"며 예산확대와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3월에는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도당, 양파수확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에서 1천여 평 양파 수확 봉사

전남도당은 지난달 6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무안 양파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부인 정옥금 여사, 전경선 상임부위원장(도의원), 박현숙 여성위원장, 김갑봉 사무처장과 당직자 등 30여 명은 이날 오전 무

안군 일로읍 복룡리 흥덕순씨의 양파밭 1천여 평에서 양파 수확 일손돕기에 나섰다.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무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남의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5.2%가 감소한 6천525ha이지만 생산량은 사상 최대의 작황 호조로 43만8,480톤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의 경우 평년 대비 15만1천톤이 과잉 생산돼 조생양파 61.3ha에 이어 중·만생 양파 20.6ha가 벌써 산지 폐기돼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농협과 무안군, 기업체 등과 협의해 양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시장격리 물량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당 전국노동위원회-전남도당 현장간담회

## '노동존중 정책협약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제안...2일 도당회의실

## 이수진 최고, 박해철 노동위원장, 최병용 전남노동위원장 등 50여 명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박해철)는 2일 도당 회의실에서 전국 순회 현장 간담회를 갖고 노동단체들과의 '노동존중 정책협약' 추진 등을 통해 노동계와의 결속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

이날 간담회는 2020 총선에 대비하여 노동계와의 결속력 및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부문 정책당원 배가 및 노동계 출마자 발굴, 시·도당 노동위원회와의 노동 현안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노동계와 농민 등 소

외계층이 정치활동에 참여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도당에 가칭 '노동존중 정책협약 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당과 정부에 지방 공기업과 각급 학교 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적극 건의해 임금이 낮아도 골고루 만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이 "2020 총선 승리를 위해 노동은 무엇을 할 인가"에 대해 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 질문 등이 이어졌다.



# 도당, 이희호 여사 별세 애도 성명

## "한국 민주화 과정의 버팀목이자 숨은 공신...깊은 애도와 추모"

전남도당은 6월 11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97세를 일기로 10일 밤 소천한데 대해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밝혔다.

도당은 이날 고 이희호 여사 서거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고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서 역사적 고비마다 늘 그의 곁을 지키며 더 강한 투쟁을 하라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었던 고인이야말로 한국 민주화 과정의 버팀목이자 숨은 공신이었다"고 추모했다. 이어 "오랜 가택연금과

도청, 감청 등 군부독재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화 투쟁은 물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온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3월부터 노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10일 밤 타계했다.

한편 도당 산하 선출직 및 당직자들은 이날 남악 김대중광장 이희호 여사 분향소를 찾아 헌화, 분향했다. 도당은 산하 10개 지역위별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14일(금)까지 운영했다.

# “이주여성인권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및 근절 나선다”

## 전남도당, 이주여성 가정폭력사건 긴급 대책회의 8일 당내 사회복지전문가 12명으로 이주여성인권보호특위 구성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당이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에 나섰다.

전남도당은 지난 8일 도당 회의실에서 박현숙 도당 여성위원장, 김화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위원회 위원 및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이현창)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이주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조직 및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도당 여성위원회와 다문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이주여성인권보호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12일 특위 발족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

최한 뒤 공식 발족했다. 특위는 박현숙 여성위원장(정다운재가복지원장), 이현창 다문화위원장(도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하혜순 도당 여성국장, 김은숙 지역아동센터장(목포), 백영남 인권지원상담소장, 이현명 당원(진도) 등 사회복지전문가 12

명이 참여했다. 또 이은성 고구려대 교수(다문화복지학), 이주여성으로는 에드나 베델라루즈(필리핀), 이랑(베트남), 레티미자우(베트남)씨 등이 위원

으로 선임됐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폭력남편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고 향후 피해자 구호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사무처장단 워크숍

목포 상그리아호텔...21일부터 2일간  
공조직 활성화 및 당 현대화추진사업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조직 및 지역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자치회 등 지역위원회 활성화 및 조직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당 현대화추진특위(위원장 박주민)에서 준비 중인 당원 관리 및 당원 투표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됐다.

이해찬 대표의 공약으로 설치된 당

현대화추진특위는 온라인 당원 소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당원자치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래로부터 소통하는 플랫폼 정당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윤호중 당 사무총장과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김감봉 전남도당 사무처장을 비롯한 각 시·도당 사무처장단, 중앙당 총무조정국장, 조직국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서삼석 도당위원장, 김영록 지사, 우기종(목포) 주철현(여수갑) 신정훈(나주화순)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해 시·도당 사무처장들을 격려했다.

## 2019 1기 ‘민주정치 아카데미’ 성료...12일 수료식

정치신인·활동가 등 60명 참여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신인 및 활동가 발굴과 뉴 리더 양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2019년 제1기 ‘민주정치 아카데미’가 지난달 21일부터 12일까지 22일간 열렸다.

아카데미 첫날인 21일에는 개강식과 함께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원의 ‘전남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방안’과 민주연구원 문병주 수석연구원의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 강의가 실시됐다.

이어 ▲김영미 동신대 교수(관광으로 먹고 사는 전남) ▲박민서 목포대 총

장(인구절벽 사회, 복지국가의 방향) ▲박광운 국회의원(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우원식 국회의원(공정과 평화) ▲연구흥 한신대 총장(민주화와 평화통일) ▲박용진 국회의원(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강의 등 4주 동안 8개 강좌가 실시됐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각 지역위원회 추천을 받은 정치신인과 활동가, 여성청년 핵심당원 등 60명이 참여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정치지망생들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21대 총선 승리를 견인할 지역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아카데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 | 전남도당 2020총선 정책토론회

#### 2020총선 핵심 변수는? (문병주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대통령 지지율, 야권 정계 개편, 20대 표심”

2020총선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지지율, 야권 정계 개편의 방향, 그리고 국정 발목론과 경제 심판론의 총선 프레임 공감도 등이 제시됐다. 또 이념과 세대(특히 20대의 표심), 지역구도(부산·울산·경남지역의 표심) 등의 유권자 지형변화에 따라 총선 구도가 출렁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문병주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월 29일 전남도당 주최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2020총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좌장은 동시대 조만형 교수가 맡았다. 다음은 토론회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요지.

#### 주제발표

##### 2020총선의 변수와 지형 변화, 총선 준비 제언(문병주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20총선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지지율 ▲정계 개편과 프레임 ▲유권자 지형변화 등이 꼽힌다.

첫 번째 변수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지지율은 대통령의 후광효과(presidential coattail effect)의 지속 여부, 그리고 정부 심판론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 등에 따라 총선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야권 정계개편의 방향이다. 민주평화당의 제3지대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 성사 여부 등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수적폐 심판인가, 아니면 좌파독재 심판인가 등의 총선 프레임 설정도 중요하다.

문 수석연구위원은 유권자 지형을 이념·정책구도, 세대구도, 지역구도로 나눠 설명하고 “부동층·중도층 유권자의 선택 및 20대 젊은 층의 표심, 이른바 부·울·경 지역의 표심이 내년 총선의 판도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 전남의 핵심 정책과제 제언(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년 총선에서 전남의 핵심 정책과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인구감소 시대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공공시설재편, 농정 여건 변화에 따른 직불제 개편 검토, 미래형 신산업 집중 육성 등이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 지역발전상생기금 제도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방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구축사업은 전남에서 경남·부산까지 섬 해양관광자원을 연결하여 남해안 전체를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해안 경제권이 활성화되면 다핵적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세부 사업으로는 목포·여수 국제 연안 크루즈 관광 기반시설 조성,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한 동서통합 문화권 조성, 영산강 권역 특화개발 및 마한문화유산 세계화 등을 제안한다.

#### 지정토론

##### 2020총선 단상(우승희 도의원)

내년 총선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전에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

총선 준비는 조직적 측면에서 ▲당의 혁신 ▲지역조직 정비 강화 ▲젊은 층에 대한 대책(정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가짜뉴스 강력 대응)을 마련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역대 최대 예산 확보 성과 홍보 ▲생활 SOC 등 주민 삶과 연계된 정책 제시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이 중요하다.

##### 전남도당의 과제(김대현 위민연구원장)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책적 비전을 보여줘야 하고, 재집권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유권자에게 각인되어야 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정권 재창출 희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어게인 2016’의 가능성도 있다.

20대 총선에서의 교훈을 잘 살피 선거제 개편 등 새로운 정치지형과 선거환경의 변화에 맞춘 선거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민심을 끊임없이 살피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선거구도가 비례선거가 아닌 조직선거로 치러진다면 도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경선을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 21대 총선, 변수와 전망(배상현 뉴시스 부국장)

내년 총선은 야당의 공세로 ‘적폐청산’보다는 ‘정권평가’ 프레임이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밀릴 것으로 보이나 지난 총선처럼 돌풍 가능성은 없다고 보며, 정부 정책과 여당의 지지율, 공천과정의 투명성, 선거구 확정 등의 변수가 민심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특히 계파 챙기기 공천을 경계하고, 당 지지도를 위협할 수 있는 공천 갈등이 없어야 한다.

##### 21대 총선에 바란다(신대운 지방분권 전남연대 상임대표)

내년 총선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정책들로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전문분야 일꾼들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철저히 기능적으로 배분 ▲어떤 문제들이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의회민주주의 확립 ▲기초의원 정당 무공천을 제안한다. 이런 개혁정책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꼭 이뤄져야 한다.

##### 전남, 새천년의 꿈과 21대 총선(김영미 동신대 교수)

문재인 정부 2년 간 전남·광주지역 대선 공약사업 국고반영률은 60%를 달성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말 공약 이행률은 각각 40%와 10%에 불과했던 것에 비추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21대 총선 승리전략은 전남의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공약’, ‘손에 잡히는 공약’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서삼석 도당위원장, 등원 1년 주요 성과



# “소금처럼...서민과 사회적 약자, 농수축산인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 농어업 현안 중심 입법활동...대표발의 30건, 공동발의 255건 호남 유일 집권여당 예결소위 위원 활동...역대 최대 예산확보 성과

지난해 6.13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서삼석 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6월 13일 등원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의무 중 하나인 국회 본회의 참석률이 본회의, 상임위, 예결위에 걸친 소속 위원회 회의 참석률 모두 100%로 나타냈다.

국회의원의 주요업무인 입법활동의 경우 대표발의 30건, 공동발의 255건으로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 도서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병원선 지원 근거 마련 ▲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 사회적 농업 육성법 등이다. 또 ▲ 낚시어선 안전성 강화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 수상레저안전 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수상 레저안전의 국가책임 근

거 마련 ▲ 우수 천일염인증품 소비촉진 ▲ 국내산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 면세유 취급수수료 폐지 ▲ 가축 질병 역학조사관 양성 ▲ 농업인 월급제 정착 보조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대상범위 확대 ▲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 등 농어촌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연간 187회에 달하는 서울-지역간 교통편 이용으로 일주일에 평균 2회 가량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등 상임위 활동에서는 ▲ 도서지역 수자원 확보 및 가뭄대책 ▲ 농어촌여성 삶의 질 향상과 농수산물 수급안정 ▲ 여객선 시계제한 운항통제 신뢰성 확보와 도서주민의 교통기본권 증진 ▲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 가축방역 국가책임화 ▲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업 ▲ 근해어업 활성화 대책마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생국감 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호남 유일의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남·광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국비 확보사업은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기본설계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400억 증액, 영산강 IV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500억 확보,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타당성 용역비 등이다.

서 위원장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채찍을 들어주신 지역민들과 후원인,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며 “소금처럼 정직한 땀과 쉽 없는 열정으로 서민과 소수 약자, 농수축산인들의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국회등원 1년을 맞아 지난달 13, 14일 양일간 무안과 신안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입법 및 본회의 참석률 등 관련내용은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지사, 민선7기 1년 기자회견

# “블루 이코노미’ 본격화하겠습니다”

## 블루 에너지·블루 투어 등 5대 프로젝트 시행 양질 일자리 창출·수요자 맞춤 행복시책 확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6일 민선7기 출범 1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도정 방향 중심에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최우선으로 점목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블루 이코노미는 바다, 섬, 하늘, 해양, 바람, 천연자원 등 전남의 풍부한 블루 자원(Blue Resources)을 활용해 포용적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경제 합성어다.

이의 실현을 위해 ▲블루 에너지(미래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블루 투어(남해안의 기적 신성장관광벨트) ▲블루 바이오(바이오 메디컬 허브 전남) ▲블루 트랜스포트(Blue Transport,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의 중심) ▲블루 시티(은퇴없는 스마트 블루시티) 등 5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전남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처방에 나선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 지원과 함께, 전

남형 일자리 발굴 및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행정 지원도 계속된다.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가칭)을 전면 시행하고 스마트팜 혁신벨리를 통해 농업 혁신성장 모델로 육성한다.

한반도 아열대화를 대비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클러스터’를 본격 조성한다. 오는 2023년까지 아열대작물의 생산·가공·체험 등 융복합산업화가 주된 내용이다.

2022년까지 도내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을 100개소로 늘려 어촌 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수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양식 시범모델 공모’ 준비에 매진하고 수산식

품 수출단지를 조성해 수산식품산업을 수출주도형 전력사업으로 육성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복시책은 남은 민선7기 기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 전남형 혁신인재 1만명을 육성을 위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된다.

소통과 안전이 우선인 도민 제일주의도 강화된다. 순천시 신대지구 일원에 들어서는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은 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된다.

민박간담회, 도·시·군 협력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및 광역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국고예산 7조원 시대 개막을 맞아 지역 핵심 SOC를 확충한다.

김 지사는 “전남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원석과 같으며, 현실의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라며 “도민의 지혜와 열정을 결집해 새천년의 웅대한 비전과 청사진 실행에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수갑·을지역위-여수시 첫 당정협의회 개최

국고지원 건의사업, 당정협의회 운영 방안 논의



여수갑·을지역위원회는 여수시와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여수갑지역위 주철현 위원장과 여수 을지역위 정기명 위원장은 지난 5월 20

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권오봉 시장, 서완석 시의회 의장과 도·시의원, 주요 당직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고지원 건의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어 주철현 여수갑지역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권오봉 시장의 복당을 환영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당정이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신뢰와 소통의 정치를 위해 지역위원회가 권오

봉 시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명 을지역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되 외부적으로는 당의 깃발 아래 하나 된 모습으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자”며 “당정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시장은 “국비 예산을 확보해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당정간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확고한 협력체계를 통해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사업, 여수국가산단 공업용수 확보,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등 2020년 국비지원 건의사업과 당정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여수갑지역위, 핵심당원 교육 및 토론회



여수갑지역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지난달 27일 오후 여수상공회의소 회

의실에서 핵심당원 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핵심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중앙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경기 김포갑 국회의원)이 ‘새로운 10년, 지역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어 고재경 담양군선관위 사무국장이 ‘선거법 및 정치관계법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들은 뒤 당에서 추진하는 ‘제로페이’ 가입 캠페인을 시작하며 교육 및 토론회를 마쳤다.

## 주철현 지역위원장, 만성리해수욕장 검은 모래 해변 정화활동

주철현 여수갑지역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검은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여수 만성리해수욕장 일대에서 핵심당원 20여 명과 함께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여수갑 당원들은 이날 장맛비가 오는 중에도 해변에 흩어진 나무 조각과 휴지 등을 주우며 만성리 해변이 다시 한 번 살아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검은 모래 해변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탔던 만성리해수욕장은 민선 6기 주철현 전 시장이 야심차게 완성한 만성리-미평간 도로가 열리면서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찾고 있다.

주 위원장과 당원들은 상가 주변을 청소하며 검은 모래 해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견을 나누며 산책 나온 시민들과도 즐겁게 인사하며 소통했다.

## 여수갑 여성위원회 발대식 갖고 총선 승리 다짐

6월 27일 여수상공회의소

여수갑지역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2020 총선과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해 여성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에는 주철현 지역위원장과 지역 여성당원 및 도·시의원, 박현숙 도당 여성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인숙 민주당 여수갑지역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발대식에서 진명숙 여수갑 여성위원장은 “여성이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 생활정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여성이 강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도



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배출해 2022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끝으로 유경희, 박기옥 위원이 여성위원회 출범 결의문을 낭독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 “원도심 전통시장 현안사업 해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여수갑지역위, 수산시장·교동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주철현 지역위원장은 지난 15일 여수시 교동 순심원에서 민병대 도의원, 강현태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수산시장상인회(회장 김상민), 여수교동시장상인회(회장 배용균)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위원장은 이날 “쾌적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후 아케이드 전면교체 또는 개보수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민 수산시장상인회장은 간담회에서 “수산시장 화재 발생 시 주철현 당시 시장의 발 빠른 대처로 6개월 만에 리모델링해 재개장을 하고, 그 후 영업이 잘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용균 교동시장상인회장은 “수산시장 화재를 계기로 교동시장 건너편 남산동 쪽에 150대 주차가능한 주차장

을 건설기로 해 큰 기대를 했으나 보상문제 등으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면서 조속한 건립을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고지원이 확정된 남산동 주차타워가 아직도 착공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속한 준공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또 “원도심 빈 땅이 부족하고 땅값이 비싸 연등천위 주차장 건설계획까지 나왔는데 안정성과 환경 문제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태 시의원은 “복개하지 않고 연등천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교동시장은 아케이드가 노후돼 전면교체나 대규모 수리가 필요하고 상인회가 노점상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산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공모에 채택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 여수갑지역위-만덕동 주민·당원 간담회

## 6월 28일 만덕동주민센터



여수갑지역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여수시 만덕동 주민센터 4층 소회의실에서 만덕동 주민·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과 민병대 도의원 그리고 강현태·김승호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만덕동 석천마을 주민들은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만흥동 위생매립장

관리 실태를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지적하고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내년 3월 위생매립장 사용기한 만료를 대비해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정리해달라. 당에서도 주민들 편에서 요구사항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어 석천마을 주차장 확보, 덕대천 관리에 대해 건의했다.

# 주철현 위원장, ‘여수 어르신문화체육센터’개관 축하

## “다양한 세대의 소통·융합 이뤄지는 창조적 공간 되길”



주철현 위원장은 지난 12일 오전 여수시 응천동 1820-2 ‘여수시 어르신문화체육센터’ 개관식에 참석, “다양한 세대의 소통과 융합이 이루어지는 창조적 공간으로 탄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축사에서 “구여수의 중심 여문지구 경계지역이자 양지 바른 이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세워져 기

쁘다”며 “센터는 제가 시장 재임 시절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더 애착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순신도서관과 아이나라 종합지원센터가 문 열면 이곳이 문화, 교육, 체육, 복지, 육아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노소와 청장년이 함께 어울리는 이상적인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센터 개관을 계기로 여수와 구 여천이 지역적으로 하나 되고 마음까지 하나 되길 기대하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총 사업비 9,720백만원, 연면적 2,727.20제곱미터의 3층 건물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상설스포츠센터, 게이트볼장 등을 갖추고 있다.

# 주철현 위원장, 여수 동문동

## 당원협의회와 간담회

주철현 지역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여수시 동문동 당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숙원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서대현 동문동 당원협의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당원들은 동문동 내 방치된 빈집들에 대한 관리 대책을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동문 방치된 빈집들의 안전과 위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 집

주인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해 철저한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원들은 관광지로 급부상한 동문동 분뇨처리의 심각성을 언급했으며 주 위원장은 “당 소속 시의원들과 긴밀히 상의해 여수시에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 여수·을지역위, 소상공인 지원 ‘해법찾기’ 나섰다

## ‘여수 소상공인지원조례 개정 토론회’(6.18 여수시의회) 주종섭·정경철 시의원 공동주관



여수·을지역위원회(위원장 정기명)는 지난달 26일 오후 여수시의회에서 지역 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 소속 여수시의회 주종섭·정경철 의원 공동주관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해법찾기에 주안점을 두고 열렸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주종섭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경철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여수시가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며 여수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행기 의원이 좌장, 정경철 의원이 사회를 맡아 열린 토론회의 발제는 신

종화 소상공인 연구소장과 주종섭 의원이 각각 ‘지역사회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및 제언’과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기창 여수상공인협회 회장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추진시책을, 문영수 전남대 여수창업보육센터장이 소상공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지막으로 정재호 여수시 지역경제과장이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발표하였다.

정기명 지역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지역민과 당원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여수·을 ‘상반기 신입당원 교육연수’...6월 3일 여수시보건소

여수·을지역위원회는 지난달 3일 오후 여수시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2019년 상반기 신입당원 연수 및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명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신입당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강의를 경청하고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담양군선관위 고재경 사무과장이 ‘정치관계법’에 대해, 김미경 당원이 ‘21대 총선과 당원들의 자세’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 정기명 위원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다시는 국정 농

단 세력이 받을 붙이지 못하도록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압승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여수시, 박주민 최고위원 여수아카데미 초청강연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최고위원(서울 은평갑)이 여수아카데미 초청강연에 나선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5일 오후 3시 진남문예회관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참여’라는 주제로 박주민 의원 초청 7월 여수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을 지내며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여수갑·을지역위원회 고 이희호 여사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여수갑·을지역위원회는 지난달 11일(화) 오전 여수 이순신광장에 고 이희호 여사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양 지역위원장과 시·도의원, 그리고 당직자 등 50여 명이 합동으로 단체분향을 하였다. 정기명 을지역위원장은 추도사를 통

해 “여사님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 더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벽을 열었던 위대한 분”이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주철현 갑지역위원장은 “이희호 여사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여성운동을 선도한 대표적인 거목이었다”고 추모했다.

갑·을지역위원회에는 백인숙 감사무국장과 최남선 을사무국장의 주도아래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참배를 권하는 홍보를 하여, 많은 공무원들과 당원, 그리고 시민들이 줄을 이어 참배하였다.

양 지역위원회 여성·청년당원들은 5명을 한조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빈소를 지키며 참배객을 맞았다.





# “2020 총선 승리는 여성당원의 힘으로...”

여수읍여성위원회 발대식 성황리에 개최...6일 여수시보건소 정기명 지역위원장, “여성위는 총선 조직 강화의 시발점”



여수읍지역위원회(위원장 정기명)는 지난 6일 오후 여수 시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여성당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읍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국회의원, 권오봉 여수시장, 주철현 여수감위위원장, 박현숙 전남도당 여성위원장, 강정희·최무경 도의원, 고희권 여수시의회 운영위원장, 주종섭·민덕희·문갑태·정현주·정경철 시의원, 김화신 여수읍 여성위원장 등이 참여하였다.

정기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지역은 2016년 1월 주승용 국회의원의 탈당 후 계

속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구심점이 없어 상설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조직이 침체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지역위원장에 다시 임명되어 총선 대비 조직 강화 첫 시발점으로 오늘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갖게 되어 감격스러우며, 지난 대선 때 여수가 전국 3위의 득표율을 올려 대선 승리 견인차 역할을 하였듯이 내년 총선에서도 압승하여 전국적 승리에 기여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그 기세를 몰아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정권재창출을 하자고 하였다.

신임 김화신 여성위원장은

“내년 총선승리의 원동력은 여성들이고, 여성이 적극 나서야 민주주의가 완성되므로 여성당원들이 적극 단합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발대식 후 박범계 국회의원이 “자치분권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1시간 30여분 동안 특강을 실시했다.

김화신 여성위원장은 이날 발대식에 앞서 여성국장 3명과 여성부위원장 12명을 선임하고, 180여 명의 여성당원으로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위원회 여성 조직을 전국 제일의 여성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었다.



## 여수읍지역위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참배

여수읍지역위원회 당원 50여 명은 지난 5월 25일(토)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 김해 봉하마을 찾아 합동 분향을 했다.

정기명 지역위원장을 비롯, 선출직과 핵심 당직자 50여 명은 이날 오전 여수시청 앞에 집결하여 대형버스와 자가용을 이용하여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도착, 헌화 분향했다.

참배를 마친 당원들은 생가를 둘러 본 후 진주형평은동기념탑을 방문한 다음 여수에 도착하였다.

정기명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국민들 곁으로 다가셨던 대통령님은 권위의 시대, 불평 등의 시대를 타파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셨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 여수시의회 7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위 구성

위원장에 문갑태 의원 선출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장에 문갑태 의원을 선출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문갑태, 이선호, 김종길, 김승호, 고용진, 이상우, 강현태, 김행기, 송재향, 정광지, 정경철 의원 등 11명을 7대 의회 제2기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 의결된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위원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문갑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들은 오는 23일 예결위 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 여수미래발전추진, 지역 발전 방안 모색 ‘잔걸음’

상반기 추진상황 설명회...인구·교육·의료 연구과제 추진 논의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위원장 서석주)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정책기획·교육혁신·의료혁신위 전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구과제인 인구유입 방안, 선순환 교육 정책, 의료분야와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 출범한 위원회는 정책기획위 15명, 교육혁신위 10명, 의료혁신위 11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정책기획위 김경민 부위원



장은 인구유입 방안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대응, 어촌뉴딜 300 등 해양수산 분야 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분과위원회 추가 논의를 통해 전체회의에서 최종 자문보고서를 확정 후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교육정책 신뢰회복과 병원별 특화전략이 필요하다”며 “3개 위원회 연구과제는 서로 연관돼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시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강정희 도의원, 위기청소년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강정희 전남도의원(여수6)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전남도는 현재 위기·취약

계층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프로그램 등을 시·군과 함께 운영 중이다.



민선 7기 1년

# 권오봉 여수시장, '시민 중심 정책' 여수시민 행복 높인다

7개 기업 6조 투자유치·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등 성과  
新성장 미래산업 구축·문화관광·행복도시 실현 약속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6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민 중심 균형발전 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2분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7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언론인 30여명과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권 시장은 시민중심과 균형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밝혔다.

권 시장은 조직개편, 공약사업 집중관리,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미래발전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시정 운

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7개 기업과 6조2천40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박람회법 개정에 힘을 보태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탄력이 붙었다.

여수 화양고 혁신학교 선정, 전남대 여수캠퍼스 지역 맞춤형 학과 개설, 여수시립박물관 문체부 타당성 평가 통과 등 인재양성과 문화 기반도 확충했다.

4년 연속 관광객 1천300만 유치와 함께 낭만포차 이전 추진, 시민불편 해소사업 시행 등 시민중심의 관광정책을 도입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행정수행으로 ‘2018년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총 43개 분야 기관표창과 상사업비 9억여원도 받았다.

권 시장은 민선7기 주요 성과에 이어 올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풍요롭고 균형 있는 상생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수산단 신증설에 따른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융합지구 조성, 혁신지원센터 구축, 수소경제 기반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에도 뛰어든다.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국제컨벤션센터 유치, 세계한상대회와 국제 섬 여수 포럼 성공 개최, 2022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통해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에 힘쓴다.

다음으로 ‘품격과 낭만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낭만포차를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으로 이전하고 돌산 백초-거북선대교 진출입로 개설, 만덕교차로 개선, 웅천-소호도로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년은 여수의 미래를 고민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며 “여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개원 1년 성과

# 제7대 여수시의회 개원 1년 의정활동 활발한 ‘성과’

조례안발의 46건, 시정질문 37건 등 6대보다 증가  
산단·여순사건 등 특위활동, 토론회·간담회도 활발

제7대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가 개원 후 1년간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개원한 7대 여수시의회는 1년간 총 9회, 126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46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7대 의회 활동실적은 제6대 시의회 개원 1년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다.

회기의 경우 6대에 비해 2회, 39일이 늘었고 의안발의 조례도 33건이나 증가했다.

주요 발의 조례는 ▲교복 등 지원 조례 ▲여수민주화운동기념조례 ▲여수시민참여기본조례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 공개조례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

정조례 등 46건이다.

7대 의회는 또 ‘여·순사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중앙정부 건의·결의안을 채택했고 여순사건 특별법과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타 조사 촉구 등 정부 방문활동도 실시했다.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위, 여순사건특위, 웅천택지특위 등 지역 현안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특위활동도 눈에 띄었다. 세 특위는 간담회, 현장활동, 실무회의 등 총 34회 이상 활동하며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서완석 의장은 “7대 의회가 일 잘하고 열심히 뛰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권오봉 여수시장, 교통안전 캠페인...16일 여수 서시장 일원

권오봉 여수시장이 16일 여수 서시장 인근에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다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여수경찰서장, 녹색어머니회 회원, 다솜어린이집 원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교통안전 버스킹 공연과 도보행진으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청년 버스커(열정거북)가 교통사고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자작곡을 부르며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여수, 그 시작은 교통안전’이라



는 구호 아래 차량속도 줄이기, 보행자 우선 배려, 불법주정차 안 하기 등의 메시지를 중점 홍보했다.

권오봉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 성료

16일 여수 진남체육관

‘2019 전남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가 지난 16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권오봉 여수시장, 지역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사)한국새농민중앙회 회장과 각 시도회장 등 900여 명이 참여했다.

개회식에서 새농민회 강제석 전남회장은 권오봉 시장에게 사랑의 쌀 200만 원 상당을



후원했고, 여수시는 이를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로 했다.

권오봉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새농민 회원

상호 간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농업발전을 위한 의지를 굳게 다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힘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갑원 지역위원장,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민생탐방 시작 12일 순천 ‘아랫장’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읍·면·동 순회

“힘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갑원 지역위원장(위원장 서갑원)가 현 오전 8시 순천 ‘아랫장’을 시작으로 내 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탐방에 나섰다. 달 말까지 순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

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정당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첫날 실시된 ‘아랫장’ 민생탐방에서는 멀리서 달려와 악수를 하며 “민주당에 더 있어. 민주당을 찍어야지”하며 힘을 실어주는 시민들이 많았다. 일부 시장 상인들은 생선에 날아드는

파리를 잡다가 “손님들이 없어 시장 상인들 다 죽게 생겼다.. 주변의 대형마트나 식자재마트 등으로 손님들이 다 버리니 대책을 세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순천지역위원회는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을 통해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수렴하고 당의 선호도를 제고, 총선 승리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은 12일 오전 8시 순천 ‘아랫장’을 시작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운영될 계획이다. 또,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정기적으로 조례호수공원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보다 많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갑원 지역위원장은 “민생고에 시름하는 지역민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갑원 위원장, 사회적 가치 연속 토론회...국회의원회관

###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 주제



서갑원 지역위원장(신한대학교 총장은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

협공사와 공동으로 ‘사회적 가치 연속 토론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설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한 연세대 행정대학원 홍순만 부원장은 “공공기관들이 조직의 핵심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정진 기술보증기금 지점장과 전완표 전과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사회적 가치 통합 전략을 기관의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현 김남현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오영민 동국대 교수, 유동우 울산대 교수 등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서갑원 위원장은 “사회를 발전, 성장시키는 데는 기술혁신 못지않게 내부 구성원들의 ‘격차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순천지역위 상무위원회 개최

당원연수, 서삼석 도당위원장 초청 강연...8월 24일



순천지역위원회(위원장 서갑원)는 지난달 29일 순천시 조곡동 순천생협요양병원 1층 소회의실에서 서갑원 위원장과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한 60여 명의 상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무위원회 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상무위에서는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설치 및 운영’, ‘하반기 당원연수 및 단합대회’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당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갑원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이동민원실 운영’을 하반기 당 운영의 주안점을 두겠다”며 상무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하반기 당원연수 및 단합대회를 오는 8월 24일 순천 상사종합체육관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서삼석 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을 초청해 ‘2020 총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 총리실 생활SOC 추진단, 18일 순천시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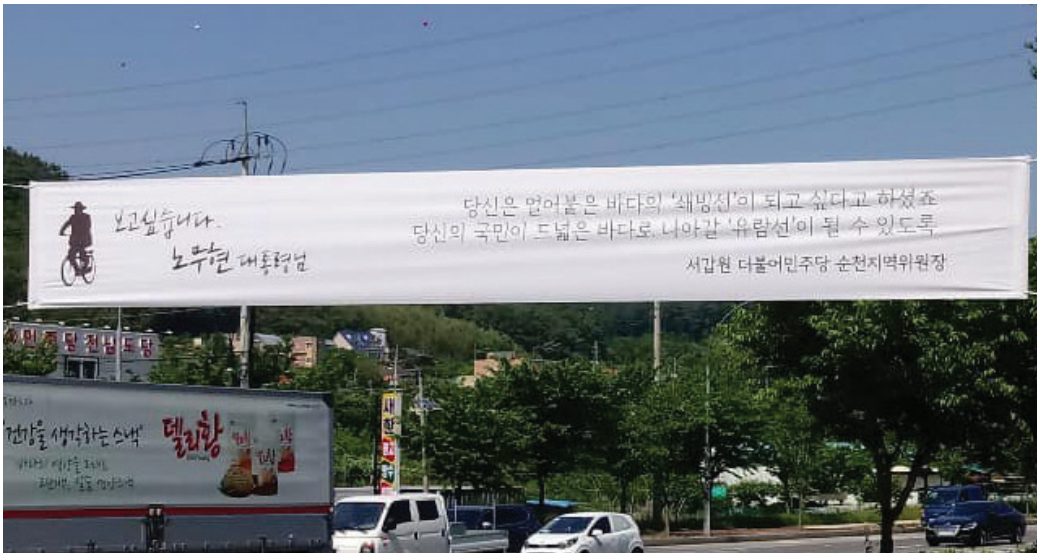
순천시(허석 시장)는 18일 국무총리직속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이 순천시의 지역주도 도시재생 성공사례 현장견학을 위해 향동, 중앙동 일원의 선도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순천시가 2014년부터 4년간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이날 ‘주민생활 SOC 거점시설’로 운영중인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장안창작마당, 서문안나소, 조강훈 스튜디오,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를 방문단에게 선도사례로 소개했다. 추진단은 최근 행안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청수정 마을카페’에서 식사를 하며 도시재생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경청했다.

# “얼어붙은 바다의 쇄빙선이 되고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이색 현수막 ‘화제’

서갑원 위원장, “지역감정 깨트리는 정치하겠다”배경 설명



서갑원 순천지역위원장은 지난 5월 27일 연합뉴스 TV와 인터뷰를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얼어붙은 바다의 쇄빙선이 되고 싶다”는 이색 현수막을 붙이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서 지역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지역감정의 골을 없애는 것이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감정을 깨트리기 위해 얼어붙은 바다의 쇄빙선 같은 정치를 하고 싶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

씀이 잊혀지지 않아 이번에 이런 현수막을 설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이어 “지난 10년 동안 슬퍼도 슬퍼하지 못하고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마음껏 슬퍼하고 미래를 논의할 수 있었던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모습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부산에서 총선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어린이들과 대화하기 위해 길에서 주저앉아 눈높이를 맞추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노 후보가 부모님께 2

번을 찍으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어린이가 “그럼 무엇을 해줄건데요?”라고 답한 것을 두고 “정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 저게 국민들의 모습이고, 정치인은 매 순간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하고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플래카드에 쓴 글처럼 노 대통령의 뜻을 이어 받아 새로운 노무현, 노무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그 길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순천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에 이현재 의원 선출

순천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현재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해정 의원을 선임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추경예산안과 본예산 등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현재 위원장은 “위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 순천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이 되었는지 공공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순천시의회, 동부권 통합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수정 가결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전남도청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순천시는 전남도청 동부권 통합청사를 유치하면서 신대지구 3만3천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전남도와 청사 건립 부지 무상 사용 협약을 했다.

순천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전남도 동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등 2건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시의회가 신보재단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출 것 등을 요



구함에 따라 동부청사 동의안 1건만 제출했다.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은 “신보재단이 통합청사 건물 내에 입주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독립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재단이 통합청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 순천시의회, 반려동물보호조례 의견 청취 간담회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이복남)는 지난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동물관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서정진 의장, 이복남 문화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순천시반려동물문화사업단, 지역 반려동물 동호회 회장, 유기견보호단체 대표,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해정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조화로운 공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의무 등이 담겼다.



# 순천시, 지방세 카카오톡 납부서비스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순천시(시장 허석)는 ‘2019년 저남 생활밀접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도민 제일주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시의 ‘전국 최초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서비스’는 휴대폰 번호로 시에서 메시지를 발송하면, 시민들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지방세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은 시민은 ‘납부하기’ 버튼만 누르면, 공인 인증절차 없이도 카카오페이(신용카드, 통장)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다.

민선 7기 1년

# 허석 순천시장, “작지만 강한 지방도시 순천 만들겠다”

## 신청사 건립 위치 확정·동부권 道통합청사 유치 등 성과 시민과 함께 ‘광장토론’ 직접민주주의로 현안 실현 눈길

“작지만 강한 지방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석 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가 들어설 예정인 해룡면 신대지구(신대출장소)에서 지난 6월 24일 언론인 브리핑을 갖고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 숙원인 ‘시청 신청사 건립 위치확정’과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유치’, ‘창업보육센터 설립 계획’ 등 전남 제1의 도시로 미래 100년의 초석이 될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민선 7기가 출발한 지난 1년 동안 순천시는 국제적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인정받은 ‘2020년 동아

시아 문화도시’ 선정과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7개국 18개 시장들이 참가하는 ‘제1회 랍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원탁회의’ 개최 확정으로 순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국내에서도 오는 9월 25일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순천 개최가 확정돼 ‘작지만 강한 순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허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든다는 도시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월등 지사골재 도로, 서면 청소골 진입도로, 연향육교 구조개선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과 토론하고 숙의하

는 ‘광장토론’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스카이크브 등 지역 현안을 시민과 함께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꼽았다.

허 시장은 “생태수도 순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양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환경을 지키면서 그것을 경제 활력으로 연결해 ‘함께 잘 살고 행복한 새로운 순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허석 순천시장, 취임 1주년 맞아

### 정책버스 투어 및 허심탄회 토크 콘서트 개최

허석 순천시장은 6월 29일 ‘시민과 함께 한 새로운 순천’의 1주년을 맞아 ‘정책버스 투어’와 ‘허심탄회 순천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정책버스 투어는 타 지역에 거주하다 순천에 터를 잡고 살게 된 시민들을 위해 실시됐다. 이들은 순천 정착 수기 공모를 통해 지난 5월 발간된 ‘순천에 뿌리내린 사람들’ 기고자들이다. 이들 가족 38명이 함께 하는 정책버스는 오후 3시부터 도시재생 사업현장과 기적의 놀이터 등을 탐방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30분에는 국가정원 습지센터 1층에서 ‘허심탄회 순천 토크 콘서트’가 실시됐다.

콘서트에는 사전 참가신청자, 정책투어 참가자 등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민선 7기 1년 시정성과와 에피소드에 대해, 2부는 ‘내가 바라는 순천은?’이라는 주제로 공감 토크가 열렸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서정진 의장, 개원 1년 기자회견

### “시민 위한 의정 활동, 특위 활동 강화, 순천방문의 해 추진”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은 민선 7기 순천시의회 개원 1주년의 주요 성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역 현안에 앞장서는 특위 활동, 순천방문의 해 추진 등을 꼽았다.

서정진 의장은 지난 3일 시의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집행부와 갈등과 대립이 아닌 건강한 견제와 협력의 동반자로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조례안 129건, 각종 예결산안 등 총 225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활발한 의원입법 활동으로 63건의 의원발의를 했으며 이중 10건이 조례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민선7기 집행부에 대해서는 “행정 신뢰도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서 의장은 “승주읍 동물보호소는 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집행부는 주민 간담회를 여는 등 과정을 반복했다”며 “집행부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자체장이 투표로 선출된 순간부터 직접민주주의는 성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재육성장학회 인사채용 과



정 중 정족수를 지키지 않고서 의결을 통과시키는 등 미숙한 행정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최근 단행된 순천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해서는 “소수직결과 나이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올 초 ‘의원 간 폭행사건’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마련한 ‘혁신안’ 수행 정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장은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적극 홍보하는 등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허석 시장, ‘시장실 25시’ 출간

허석 순천시장이 1년간의 시정 활동을 담은 ‘시장실 25시’를 출간했다.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돌아보기 위해 쓴 ‘시장실 25시’를 통해 허 시장은 “1년이 10년은 된 것처럼 강행군이었다”며 “의욕적인 초선 시장의 일상을 담았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지난 1년의 일들을 정리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가 타산지석이 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들어서였다”는 저술 동기를 밝혔다.



# 개원 1년 제11대 전남도의회 ‘동분서주’

**이용재 의장 “일하는 열린 의회, 도민 섬기는 의정활동 주력”**  
**도민 삶의 질 향상·현장중심·민생의정에 집중 ‘다짐’**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1년간 전남발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전력을 쏟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200만 도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주요 핵심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정해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와 현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이용재 의장(광양·곡성·구례지역위

원장) 취임 후 1년간 총 10회, 135일간(정례회 2회 58일, 임시회 8회 77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안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 총 378건을 처리했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조례 ▲중소기업 생산제품 수출촉진조례 ▲청년구직지원조례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조례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조례를 처리했고 전체 206건 중 의원발의는 154건으로 74.8%에 달한다. 또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도내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여수·순천 10·19사건특위, 광양만권해양생태계보전특위, 한빛원전특위, 청년발전특위, 남북교류협력지원특위 등 총 5개의 특위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다.

여·순사건특위는 국회 등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광양만권해양생태계보전특위도 여수국가산단 폐색교 문제와 대기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재 의장은 “58명의 도의원 모두가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미래 꿈을 주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했던 지난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재 의장, “중소기업 어려움 타개 적극 나설 것”

강병영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면담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은 지난 10일 강병영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과 면담을 갖고 전남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날 면담은 강병영 회장의 취임 인사차 방문해 이뤄진 것으로 중소기업이 처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과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강병영 회장은 이용재 의장에게 중

소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전남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해 줄 것과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을 건의했다. 이용재 의장은 “경기상황이 갈수록 좋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도의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해 조례를 이미 제정하는 등 적극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 이용재 의장,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조례 제정

전라남도의회는 11일 이용재 의장(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전남은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 진료나 대형 재해 발생 시 골든타

임 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외상센터 지정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5년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 이용재 의장,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경기 시구시타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김영록 지사와 함께 시구와 시타를 했다. 이용재 의장(오른쪽)은 이날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19국제농업박람회를 맞아 농업박람회 홍보를 위해 시타를 했다.





## 광양·곡성·구례지역위, 곡성군과 당정협의회 개최

### 미래교육협력센터, 섬진강환경청 유치 등 국·도비 지원 건의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회(위원장 이용재)는 지난달 12일 곡성군과 2020년 국·도비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유근기 곡성군수를 비롯해 군 실과장과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군 주요현안사업 4건과 국·도비 건의사항 14건에 대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함께 나눴다.

곡성군 주요 현안 사업으로

는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 석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유치사업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군은 곡성치유단지 조성, 복합문화센터 건립, 석곡 도시재생사업, 곡성토란 6차 산업화 사업 외 9건에 대해 국·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역설했다.

이용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뢰와 소통의 정치를

위해 지역위원회가 곡성군과 동반자가 되어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 유치를 적극 동감하며 곡성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근기 군수는 현안 사업과 건의사항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당 차원에서 중앙부처, 도와 협력해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용재 도의회 의장, 광주세계수영대회 적극 동참기로

### 입장권 170매 구입, 2일 전남체육회에 전달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장 직대)이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입장권 구매 등에 적극 동참했다.

이 의장은 지난달 10일 도의회를 방문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12일 개막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

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전남의 상생 차원에서 전남도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도울 것이다”며 “대회 홍보는 물론 입장권 단체구매 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 2일 입

장권 170매(500만원 상당)를 구입, 박철수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과 황의준 전남수영연맹 회장에게 전달했다.

도체육회는 전남 엘리트 선수들의 사기진작·경험 축적을 위해 전남체고, 동광양중, 여수문수중, 목포한빛초 등 총 32개 학교 135명의 수영선수들이 대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제8대 광양시의회 출범 1년

### 김성희 의장, “시민중심의 열린의회, 정책의회를 만들터”

제8대 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시민 중심의 열린의회, 정책의회’를 표방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 대변자로서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102일간의 회기 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95건), 예·결산안 심사(12건), 일반안 심사(50건), 결의·건의·성명서 채택(8건)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어 ▲대안을 제시

하는 정책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내걸고 개원과 함께 ‘협력, 협치, 혁신’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1년을 달려왔다.

김성희 의장은 “지난 1년간 시의회를 믿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양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이용재 의장, 12일 한국의정 정보협의회 발대식 참석

이용재 도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의정정보협의회 설립 발대식에 참석했다.

한국의정정보협의회는 ▲전국 단위의 지방의회 의안, 회의록 등의 자료공유 및 정보서비스 ▲디지털 발간자료 중심의 협력기반 마련 및 인적교류 ▲기존 의정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개발 및 확대 ▲정기적 회의개최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용재 도의장은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 협력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 이후의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김순호 구례군수, 여성 이장단 간담회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달 24일 17명의 여성 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군수는 간담회에서 천은사 입장료 폐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지리산정원 짚라인 및 모노레일 설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 등 민선 7기 1주년의 주요성과를 소개하고 군정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한 이장은 “여성 이장들만의 이런 자리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에는 155명의 이장이 있으며 그 중 17명이 여성 이장이다.

**민선 7기 1년**

# 정현복 광양시장, 광양 '전남 최고 경제도시' 도약에 총력

저출산 극복 선도도시·5년 연속 일자리대상 등 성과  
정주기반 확충·新산업 동력 창출 '시민 중심 시대' 켜걸음

정현복 광양시장은 민선 7기 1주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남 제1의 경제도시' 도약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올해 시정 핵심목표인 '신산업 동력 창출로 미래 100년을 준비' 등 7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저출산 극복 선도도시 도약 ▲청령도 평가 광주·전남 유일 1등급 ▲5년 연속 일자리대상 수

상 ▲'2차전지 소재 클러스터 구축' ▲예술평화학교 설립 추진 ▲경관육교·야간경관 조명 설치 ▲'치유의 숲' 개장 ▲도시재생뉴딜사업 ▲와우·길호포구의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등을 꼽았다.

시정 운영방향으로 첫째, 도시 정주기반의 지속적 확충이다.

둘째, 신산업 동력 창출이다. 세풍·황금·울촌산단에 포스코 2차전지를 비롯해 전기자동차와 드론, 로봇 산업을 유치하고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광양항 내부순환도로 개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셋째, 시민 중심의 체감형 생활복지 실현이다.

또한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창의공간'과 '시니어종합지원센터' 등 생활SOC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광양시 발전과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광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유근기 곡성군수, '미래교육협력센터 조성' 성과

온 마을이 배움터, 미래교육재단 한 단계 발전 의지  
71개 공약도 순항 중...3건 완료·61건 정상 추진 중



유근기 곡성군수는 민선7기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미래교육협력센터' 조성을 꼽았다. 곡성군은 민선 7기 역점시책으로 권

역별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창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교육협력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 직후 미래교육팀을 신설하고 의회,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를 지속했다.

미래교육협력센터는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이며, 향후 미래교육재단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는 '모두가 행복한 곡성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의교육, 진로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농촌유학 등 5가지 전략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유 군수는 지난 4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평가에

서 최우수등급(SA)을 받기도 했다. 특히 민간주도 수익형 시내 민박 지원사업인 곡성스테이, 학교밖 청소년 인턴십, 고교 무상교육, 수도권 대학생을 위한 곡성학사 마련, 곡성 꿈놀자학교 운영 등은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해 ▲곤충 미생물 산업 육성 10억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60억 ▲섬진강침실 습지 복원 사업 100억 ▲섬진강전선지중화 45억 등은 국비 등을 확보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유 군수가 임기 내 가장 큰 목표를 '지역경제활성화'로 삼고 "권역별(곡성읍권, 옥과권, 석곡권) 특화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여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 김순호 구례군수 "현안사업인 '지리산케이블카' 성공시킬 것"

6개 분야 50개 공약사업 마무리...총 80% 임기 내 추진

김순호 구례군수는 1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로 정한 군정 목표와 살기 좋은 관광 구례를 위해 지난 1년은 군민과 소통하면서 협치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날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민선 7기 취임 1주년 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고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구례를 발전시키자는 군정 방향에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 간 6개 분야 50

개의 공약사업을 비롯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4대 권역별 사업 가운데 농산물품질관리원 구례분소 개설 등 5건의 공약사업이 마무리됐다. 이어 3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80%가 임기 내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 군수는 구례 발전 방안 가운데 4대 권역별 사업 추진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구례읍 권역은 시장 활성화와 도시 재생을 통해 중심적인 소비 지역으로

구성된다. 구례읍사무소를 근대역사박물관으로 만들고 복합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5일장은 매일장으로, 상설시장은 특화시장으로 발전시키고 1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도 추진한다.

화엄사 권역은 상가 리모델링 및 반달가슴곰 생태 학습장, 지리산역사관의 관광 벨트화 조성 등에 나선다.

김 군수는 "지난 2월 시작한 지리산케이블카 추진 서명운동이 4개월 만에 3만4천여 명이 참여했다. 케이블카 건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